

외국차가 몰려온다

⊕ 차 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건전한 차문화 형성을 위한 제안

소비자 똑똑해야 시장 수준 높아진다

▷ 소비자가 먼저 변화하자

차 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소비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질의 차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인터넷 차 판매 사이트 '중국차 즐기기(www.teancha.com)' 손승구 대표는 "차 시장 개방은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좋은

자신에 맞는 차 선택이 중요 정보공유 통해 안목 길러야

차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차의 질을 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질 낮은 차를 비싸게 사게 되거나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천 석약사 전통차집 단인의 오숙 대표는 "무작정 비싼 차나 남이 좋다고 하는 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를 마셔보으로써 자신의 몸에 맞는 차를 찾는 것이 올바른 차인의 자세"라고 말한다.

결국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차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인들이 체계적인 품다(品茶) 교육을 받거나 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차 관련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외에 차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차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인들은 일부 차 수입·판매상의 기획 이벤트나 마케팅 상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차에 관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고급화·대중화로 이겨내자

"우리 차가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을 쓰지 않는 고급 수제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폭을 넓히고 해외 수출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 효월수제차 이기영 대표는 차 시장 개방 시대에 우리 차가 살길은 '고급화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량생산은 지양하고 본래 우리 녹차

경쟁력 있는 수제차 개발과 욕구에 맞춘 다양한 상품 절실

가 가진 신선한 맛과 향을 살린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미료가 든 음식을 몇 년 씩 먹다보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싱겁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약이나 비료가 첨가된 차를 오래 마시면 본래 차의 맛을 느끼기 힘들어집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배방식과 차 수목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니아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나누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급 수제차는 그것대로 발전시키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차를 대량 생산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차 마니아들을 위해서는 녹차뿐 아니라 반발효차, 발효차, 떡차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개발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차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차 음료와 차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 방법이다.

최근 외국차의 무분별한 수입과 그에 따른 우리 전통차 시장의 왜곡과 붕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는 7월 WTO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 차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차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살펴본다.



최근 중국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국차들이 수입 판매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인사동 차전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다기들(위)과 외국차 전시 판매장(오른쪽) 모습.

▷ 차문화 운동 확산 계기로

아무리 좋은 차가 생산된다 해도 지금까지처럼 '차는 비싸고 마시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 우리 차 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인은 1~2백만 명을 헤아린다고는 하지만 1인당 차 소비량은 약 50g에 불과하다. 우리 차 시장을 먼저 키워야 할 시점인 것이다.

차 시장 개방을 계기로 차 관련 단체들은

활성화 운동 전개로 소비 유도 홍보, 마케팅 방안 모색 필요



"우리 차 문화 운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차 마시는 일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경남 하동의 차 재배농가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하동차'를 알리기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자가 생산한 차를 엄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하동에서 생산되는 차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화개제다 배회정 기획실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 무료시음장과 다실(茶室)을 마련하는 등 우리 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질 좋은 차를 생산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외국차가 몰려온다 해도 우리 녹차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snoopy@buddhapia.com



차 단신

22일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개최



오는 5월 22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개최된 행사 모습.

다성(茶聖) 초의(1786~1866) 선사의 탄생 218주년을 맞아 5월 22일과 23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는 초의선사탄생문화제가 열린다.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윤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2일 풍물 길놀이와 국악단 공연으로 막을 연다.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23일 오전 10시에는 초의선사 탄생지 경내의 연못 초의지(柳衣池)와 초의지 안에 마련된 용호백로정(濔湖白鶴亭)의 개장식이 열린다. 이어 초의선사 헌다의식과 어린이 행다시연, 중국과 대만 다법시연, 초의선사 폐불 봉안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오후 2시부터는 용호백로정에서 초의선사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

용호백로정 개관 세미나 등 행사 다채

날 세미나에서는 이평래(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정신문화연구원 허홍식 교수가 '한국 불교에서 초의선사의 위상'을, 전남대 배종민 교수가 '초의 선사의 예술세계'를, 용운 스님이 '초의 스님의 동다송에 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의 등(燈)' 밝히기, 나무심기, 떡차 만들기, 제다 체험, 다식 만들기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은 찻잔으로 초의선사에게 헌다를 하는 '천인 헌다제'는 지난해부터 개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헌다 찻잔은 '찻잔박물관'에 전시된다.

윤운 스님은 "올해부터는 무대행사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다"며 "본격적인 차수확기를 맞아 함께 차 한 잔 나누며 우리나라 차문화의 흥을 돋우는 초의 스님의 뜻을 기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61)285-0300

청주불교방송, 조선 찻사발전

500여명 참석 성황 가치 재조명 기회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이)이 개국 7주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500년만의 귀향-조선 찻사발 특별전'이 지난 5월 8일 청주 한국공예관 전시실에서 막을 올렸다.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도영심 이사장 등 차인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일반 노무라 박물관 학예부장 타니 씨와 고려미술관 김파랑 씨의 강연회와 전통차 시음회



'조선찻사발 특별전' 개막식이 5월 8일 청주한국공예관에서 열렸다.

등이 펼쳐졌다.

조선시대 도자기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7월 8일까지 계속된다. (043)294-5114

차인련, 25일 국제 차문화축제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동선)는 오는 5월 25일 제24회 차의 날을 맞아 이해 국제한정기념관에서 '국제 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00여 단위차회 회원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의 차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인 90여 명이 참석하게 될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국화헌

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리는 차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차와 다식을 대접하는 두리차회, 축하리셉션, 올해의 명차 시상식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차인연합회는 1981년에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02)734-5866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마라난타사 건립불사에 초대합니다

영광 법성포(法聖浦)는

인도의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국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처음 당도한 곳입니다.

이 불연깊은 법성포에 백제 불교 최초도래성지를 조성하는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숭고한 대작불사에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동참시주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 사업회 합창



백제불교최초도래성지 마라난타사 문의 061)356-6008

<http://kumdeung.com>

황금연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